황진성 “물오른 골은 덕분”

〈포항 MF〉 〈아내 신유리〉

황진성이 포항의 시즌 초반 선두 질주를 이끌고 있다. 황진성은 힘의 원천이 아내의 든든한 후원이라고 했다. 사진제공 | 포항스틸러스

2경기 연속골…포항 리그선두의 핵심
“올해 목표는 팀 우승·30-30클럽 가입”

포항 스틸러스의 초반 질주가 무섭다. 정규리그 6라운드 현재 4승2무로 당당히 선두다.

포항의 힘은 중원에서 나온다. 그 중심에 황진성(27)이 있다. 황진성-김재성-신형민이 역삼각형으로 포진한 미드필드는 K리그 최강으로 꼽힌다. 황진성은 물 오른 득점감각까지 뽐내고 있다. 최근 2경기 연속 2골로 리그 득점 2위(4골). 미드필더로는 독보적인 득점 행진이다.

황진성의 맹활약을 지켜보는 포항 구단과 팬들의 심정은 더 남다르다. 그는 포항 유스 출신 마지막 황금세대다. 2003년 황진성, 오범석(현 수원), 박원재(현 전북) 등 7명의 포철공고 출신들이 한꺼번에 입단했다. 이후 유스 출신 가운데 주전급은 신광훈(24) 정도다.

황금세대도 뿔뿔이 흩어졌다. 오범석과 박원재는 다른 팀으로 떠났고, 나머지도 각자 길을 갔다. 황진성만 남았다. 그는 벌써 포항 9년차다. 유소년에 남다른 투자를 아끼지 않은 포항의 마지막 자존심이다. 고무열(21), 신진호, 정정석(이상 23)등 올 시즌 입단한 유스 출신 새내기들에게 황진성은 롤 모델이다.

● 팀 우승과 30-30 클럽 가입

황진성은 포항 유스 출신답게 가장 먼저 팬들을 언급했다. “작년에 부진할 때도 팬들에게 가장 미안했어요. 올 시즌 팬들이 기뻐하는 모습이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축구 할 맛이 나죠.”

포항 관계자는 “팬들 역시 다른 선수보다 황진성을 끔찍하게 아낀다”고 귀띔했다.

황진성은 올 시즌 두 가지 목표를 세웠다.

첫 번째는 당연히 팀 우승이다. 작년 팀이 6강 플레이오프에도 오르지 못해 마음고생이 심했다. 올 시즌 앞두고 단단히 각오를 다졌다. 어느 때보다 동계훈련을 충실히 소화했다.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개인 목표는 30-30 클럽 가입이다.

그는 현재 27골34도움을 기록 중이다. 지금 같은 페이스면 올해 목표 달성은 문제없을 전망이다.

● 아내가 있기에

황진성은 2009년 겨울 동갑내기 신유리 씨와 백년가약을 맺었다.

2007년 경 친구 소개로 승무원 출신 아내를 만나 열애 끝에 결혼에 골인했다. 그는 이후 득점이나 좋은 활약을 보인 날이면 인터뷰 때마다 늘 아내를 언급해 주목을 받았다.

이번에도 아내 이야기를 빼놓지 않았다.

“사실 저는 아내랑 조금이라도 더 같이 있고 싶어서 결혼 했거든요. 늘 힘이 되고 대화를 하고 나면 스트레스도 자연스레 풀려요. 2세요? 좀 더 신혼생활 만끽하려면 천천히 가져야죠. 하하.”

윤태석 기자 sportic@donga.com 트위터@Bergkamp08

편집 | 심승수 기자 sss@donga.com 트위터@simss23

Talk Talk 사커 유쾌한 뒷담화

베르손 “아빠 20분만…”
윤성효감독 ‘골 넣으면 소개팅 시켜준다’ 말에

●…수원 삼성 브라질 용병 베르손이 ‘아빠’를 무지 괴롭히고 있습니다. 베르손은 양아버지를 자처한 윤성효 감독을 ‘아빠’라고 부릅니다. 베르손이 15일 강원전에 첫 출전한 것도 “아빠, 20분만”이라고 졸라서 윤 감독이 어쩔 수 없이 10분 정도를 출전시킨 거라고 하네요. 첫 출전을 앞두고 베르손은 윤 감독에게 소개팅 준비를 요구했다고 하네요. 윤 감독이 “골을 넣으면 여자친구를 소개시켜주겠다”고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했던 이야기를 잊지 않았던 겁니다. 베르손은 “아빠 나 골 넣을 준비했으니 약속 지킬 준비하세요”라며 능글맞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베르손은 아쉽게도 골을 넣지는 못했습니다.

“K리그 가이드북 더 알차게 만드느라 늦었어요”

●…프로연맹 홍보팀은 최근 언론사와 축구 관계자들에게 적잖은 항의를 받았다고 하네요. 개막 즈음 배포되던 미디어 가이드북이 올해는 감감무소식이었거든요. 알고 보니 일반 팬들도 공유할 수 있는 공식 가이드북을 만드느라 시간이 더 걸렸답니다. 이번 가이드북은 일반 팬들에게도 판매가 됩니다. K리그 가이드북이 판매되는 건 2002년 이후 처음입니다. 찬찬히 뜯어보니 해설위원 관전평, K리그 관련 정보를 한 눈에 알 수 있는 팁(TIP), 자세한 선수소개와 경기장 가는 방법 등 내용이 알차네요. 한 권 당 일정 비율의 인세를 연맹이 가져간다고 하니 책을 많이 사면 살수록 연맹 재정도 튼튼해질 겁니다. K리그를 사랑하시는 팬들 모두 서점으로 고고씽 하세요.

K리거들 “기록원 아저씨, 내 기록 돌려줘요~”

●…프로연맹이 연일 계속되는 기록 오류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요. 16일 전북-광주 전에서 이동국의 도움 2개가 누락됐다는 전북 측의 주장이 나왔죠. 17일 경남-전남 전 두번째 도움도 웨슬리에서 윤석영으로 바뀌었구요. 최근 3년간 한해 평균 약 8개의 오류가 발견됐는데 올 시즌 들어 이동국 건을 포함하면 정정된 기록만 벌써 6개입니다. 연맹이 기록원들에게 좀 더 정확한 판단을 강조하는데도 잘 안 되는 모양입니다. 흥미로운 건 기록 오류 대부분을 선수들 스스로 알아챈다는 겁니다. 6일 대전-포항, 16일 전북-광주 모두 마찬가지였죠. 조기축구 경기 후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자신이 올린 도움이나 득점은 파노라마처럼 세세하게 회상할 수 있는 것과 똑같은 원리겠죠?

강원 김상호감독 얼마나 억울했으면 눈물까지

●…강원 김상호 감독이 진정한 프로팀 감독이 되기 위한 혹독한 성장통(?)을 앓고 있습니다. 김 감독은 15일 수원전 도중 판정에 항의하다 퇴장을 당했습니다. 이전 울산과의 경기 포함 2경기 연속 애매한 판정으로 실점했다고 생각해서인지 격하게 항의를 한겁니다. 퇴장당한 뒤 라커룸으로 간 김 감독은 속이 많이 상했는지 눈물까지 보였다고 합니다. 팀이 어려운 상황에서 처음으로 프로팀 지휘봉을 김 감독에게 한마디 조언이 필요한 것 같네요. “참고 견뎌야만 합니다.” 스포츠 2부 축구팀

내달 열릴 수원컵에 대비해 18일 소집된 U-20 대표선수들이 지급 받은 훈련복 등을 비닐봉지에 담아 들고 숙소로 이동하고 있다. 파주 | 연합뉴스

AFC 챔스리그 32강 조별리그 4라운드 일정

조	K리그	상대	경기일정(한국시간)	홈/원정	중계
E	제주	감바 오사카	20일 오후 7시	원정	
F	서울	나고야 그램퍼스	19일 오후 8시	홈	SBS ESPN, MBC스포츠+
G	전북	세레소 오사카	20일 오후 7시	홈	STAR SPORTS
H	수원	가시마 앤틀러스	19일 오후 2시	원정	SBS ESPN, MBC스포츠+

제주 “오사카 잡고 챔스 16강 간다”

■ AFC 챔스리그 4R 관전포인트

수원·전북, 日 원정 이겨야 조1위 16강 확실
서울, 나고야 홈에 불러 챔스리그 무패 도전

K리그와 J리그가 2011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32강) 4라운드에서 리턴매치를 갖는다. 3라운드와 똑같은 대진에 홈과 원정만 바뀌었다. 3라운드에는 K리그와 J리그가 1승2무1패로 우열을 가리지 못했다. E조의 제주 유나이티드는 20일 감바 오사카 원정에서 승리하면 가장 먼저 16강 진출을 확정한다.

●경기력 살아나는 J리그

일본 동북부 대지진 이후 제대로 훈련하지 못하고 3라운드를 치렀던 J리그 팀들은 서서히 감각을 회복하고 있다. 리그가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실전을 치를 기회가 없었던 J리그 팀들은 AFC 챔스리그 3라운드를 뛰면서 제 모습을 찾아갔다. 이에 K리그 팀들은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다. 특히 일본 원정에 나서는 제주와 수원은 탄탄한 수비력을 바탕으로 선제골을 주지 않는 전략으로 나설 예정이다.

●4라운드에 전력 쏟는 전북과 수원

G조 전북과 H조 수원은 3라운드에 1.5군으로 챔스리그를 치렀다. 이유는 챔스리그 후 곧바로 K리그에서 맞붙기 때문이었다. 결과적으로 전북은 세레소 오사카 원정에서 패했고, 수원은 가시마 앤틀러스와의 홈경기에서 비겼다. 하지만 4라운드는 다르다. 이번 경기에서 반드시 승리해야만 조1위로 16강에 진출할 수 있다. 전북과 수원은 4라운드에서 승리하면 16강 진출의 8부 능선을 넘는다.

●챔스리그 무패에 도전하는 서울

서울은 K리그에서는 부진했지만 챔스리그에서는 K리그 4팀 중 가장 성적이 좋다. 2승1무로 F조 1위에 올라있다. 나고야 그램퍼스를 홈으로 불러들이는 서울은 이 경기에서 승리하면 큰 이변이 없는 한 16강 진출이 유력하다. 변수는 서울 황보관 감독이 6일 나고야 원정에서 당한 퇴장으로 이번에 벤치에 앉을 수 없다는 점. 그러나 황보 감독은 18일 기자회견에서 “선수들을 믿는다. 맹수 같이 이기려는 의욕만 있다면 어느 팀이든 두렵지 않다. 우리 경기력만 유지한다면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최용석 기자 gtyong@donga.com 트위터@gtyong11

여자축구가 아름답다 | 2011 WK리그 스포츠동아가 공식 후원합니다

신생팀 스포츠토토 창단 첫 승점
강호 서울시청 상대 값진 0-0…고양 대교 5연승

“우리도 할 수 있죠. 투지와 희망으로.”

WK리그 스포츠토토 손종석 감독의 자신에 찬 말이다.

18일 IBK기업은행 2011 WK리그 5라운드가 열린 함안공설운동장에서 올 시즌 창단한 스포츠토토가 만난 상대 서울시청은 창단 7년차의 강호다.

서울시청은 이날까지 2무2패로 첫 승이 급했다. 이런 상황에서 4전 전패, 2골-13실점으로 꼴찌였던 스포츠토토를 만났으니 서울시청의 승리는 뻔해 보였다.

작년 독일에서 열린 U-20 여자월드컵 3위 주역 ‘얼짱 골키퍼’ 문소리와 수비수 김혜리, WK리그 출범 첫 골을 넣은 정세화 등 쟁쟁한 멤버들이 포진한 서울시청에 반해 스포츠토토는 선수단 모두 철저한 무명이었다.

하지만 손 감독은 “우린 여자축구 롤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자신했다. 특히 구단 지원이 풍성하다. 봉급도 부끄럽지 않고, 화장품과 선크림부터 여성 생활용품까지 지급해 선수들이 축구에만 전념토록 여건을 조성했다.

전반 9분 정세화의 슛이 골대 맞고 튕겨 위기를 넘긴 스포츠토토는 2분 뒤 권수진이 아크에서 날린 슛이 골대를 살짝 빗나갔고, 전반 30분 이미경이 절묘한 로빙슛을 시도하는 등 만만찮은 반격을 했다.

최종 스코어 0-0.

창단 이후 값진 첫 승점을 딴 스포츠토토의 투혼이 빛을 발한 하루였다.

한편 고양 대교는 부산 상무를 2-1로 꺾고 5연승으로 선두를 지켰고, 현대제철과 수원FMC는 2-2로 비겼다. KSPO도 충남 일화와 1-1로 비겨 첫 승점을 올렸다.

함안 | 남장현 기자 yoshike3@donga.com 트위터@yoshike3